

언어 영역

정답

1	2	2	3	3	5	4	2	5	4
6	3	7	2	8	4	9	4	10	3
11	4	12	1	13	2	14	5	15	5
16	5	17	3	18	2	19	5	20	5
21	1	22	2	23	1	24	2	25	3
26	5	27	5	28	4	29	1	30	4
31	3	32	4	33	5	34	1	35	2
36	3	37	2	38	2	39	1	40	3
41	3	42	5	43	5	44	3	45	1
46	4	47	3	48	2	49	4	50	2
51	1	52	1	53	1	54	5	55	2
56	4	57	1	58	4	59	5	60	4

틀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을 듣고 설명하고 있지 않은 그림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이제 '남사당패'에 대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 후기의 유랑 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의 연회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연회 종목에는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풍물은 쟁과리, 징, 장구, 태평소로 판을 여는 것인데요, 주로 옷타리가락을 바탕으로 한 농악으로, 짜임새 있는 묘기를 가미하여 연회적 요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버나는 대접이나 켓바퀴 또는 대야 등을 앵두 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묘기입니다. 오늘날 서커스의 점시돌리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묘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버나잡이와 어릿광대가 재담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서커스의 점시돌리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재담이 버나의 재미를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판은 '잘하면 살 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농악꾼의 장단에 맞춰서 부리는 땅재주로 체조의 마루운동을 연상시킵니다.

어름은 허공에 줄을 걸어놓고 줄 위에서 노는 놀이입니다. 열을 위를 건듯이 어렵다 하여 이와 같이 불렸습니다. 어름 역시 재담을 주고 받으면서 장단에 맞춰 노래와 춤, 그리고 기예를 선보입니다.

덧뵈기는 탈놀이로 '맨얼굴이 아닌 탈을 쓰고 본다.', 즉 '덧본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한 춤보다는 익살스런 재담과 동작이 두드러지는 풍자극으로, 주로 평민의 편에서 지배 계층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은 어름(줄타기), ③은 버나(점시돌리기), ④는 풍물, ⑤는 덧뵈기(탈놀이)이다. ②는 저글링(juggling-여러 개의 점이나 공을 공중에 연속적으로 던지고 받아내는 묘기)인데, 강연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 [출제의도] 강연 내용을 듣고 중심 화제를 찾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 국민의 독서량이 세계적으로 아주 적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독서가 중요하므로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서에서 정작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읽었다는 학생에게 "그래, 그 책을 읽은 후 무슨 생각을 했니?"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책의 줄거리와 시점, 인물 간의 갈등, 전개 방식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을 유창하게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참고서나 자습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암기하여 말했던 것이죠.

저는 학생이 과연 소설을 제대로 읽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학생은 소설을 읽은 것이 아니라 소설과 관련된 주변 지식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메밀꽃 필 무렵』을 읽었다고 말하려면 소설 속의 묘사된 아름다운 배경과 인물의 심리에 대해 나름대로의 느낌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의 내용과 독자의 경험이 어우러져 내면화될 때 진정으로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자신이 책속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작품 속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상하며 또 비관할 수 있어야 올바른 책 읽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책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안다고 해서 독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단편적 지식을 정리해서 '시간이 없다, 책 읽기가 귀찮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 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책을 읽는 것은 올바른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에 대한 교양 강의의 일부로, 한 학생의 잘못된 책임감을 예로 들어, 책임기의 올바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 [출제의도] 화법 수업의 일부를 듣고 '정중어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화법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중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학생1(남): 기분 좋죠.

학생2(여): 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사: 그렇죠. 말을 정중하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합니다. 또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정중어법'이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주고받는 말하기의 태도입니다. '정중어법'은 높임법처럼 일정한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청자에게 보이는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정중어법 중에서,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먼저 찬동의 격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주로 말하는 방법이지요.

다음으로 겸양의 격률은 자신에 대한 칭찬

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은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끝으로 동意的 격률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경우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이 같은 점을 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영화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겸양의 격률'로 대꾸를 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영화: 너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 복습을 잘 하니?

정중어법 중에서 겸양의 격률은 화자가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 [출제의도] 꽃담에 대한 교양 강연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우리 나라 '꽃담'에 대한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집의 벽체나 담장에 여러 가지 무늬를 놓아 독특한 차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식한 벽체나 담장을 꽃담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벽을 벽체, 집을 둘러친 울타리를 담장이라 하는데, 이러한 벽체나 담장에 울타리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식적 기능을 더한 것이 꽃담입니다. 그런데 꽃담은 단순한 장식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깃들여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신에 대한 외경심을 배워 온 우리 조상들은 불행을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을 막는 방편으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 보호막을 만든 것입니다.

복숭아 문양을 통해 장수를 기원하고, 석쇠무늬를 통해 온갖 악귀를 막았으며, 꽃무늬를 통해 행운을 불러들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화 문양은 높은 품격의 상징이자 지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용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꽃담인데, 꽃담을 쌓을 때는 주로 진흙과 모래, 돌 등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흙을 구워 만든 진돌, 석회, 짚을 섞어 만든 어물, 새끼줄, 목재, 단청 도료 등이 주재료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요.

이러한 꽃담은 삼국사기에 '진골 계급은 주택의 담장에 석회를 발라 꾸미지 못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미 성행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꽃담의 의미, 기능, 문양, 재료는 강연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변화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 [출제의도] 라디오 대담을 듣고 사회자의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얼마 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식도 점차 도입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전자 투표, 과연 할 만한 것입니까?

김교수(남): 예, 저는 전자 투표의 실시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전자 투표의 문제점 중,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지난 미국 대선 당시에도 전자 투표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종종 수백, 수십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작은 오류도 치명적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인터넷 투표의 경우에는 사이버 해킹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만약 투개표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시비가 일어난다면, 전자 투표제의 도입은 분명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자 투표제의 도입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에 대해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교수(여): 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전자 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함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터넷 투표는 보다 광범위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돼야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수정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2008년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현재의 기술력이라면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기술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전자 투표의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교수님?

이교수(여): 예, 기존의 투표에선 유권자가 지정 투표소에 직접 나가야 했지만 전자 투표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10~20% 정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전망만으로도 전자 투표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투개표의 관리 비용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점과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유도할 거라는 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전자 투표의 긍정적 효과로 투표율의 제고를 꼽아주셨는데, 그럼 이에 대해 김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교수(남): 예, 이교수님의 말씀처럼 투표율은 올라야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자 투표제가 투표의 기본 원칙에조차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비밀투표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거죠. 전자 투표는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가가 중앙 전산망에 남게 되고, 이로 인해 투표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합리적 방법을 마련해야지, 손쉽게 전자 투표로 전환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는 두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요약 정리하면서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6. [출제의도] 라디오 대담을 듣고 두 대담자의

공통된 생각을 찾는 문제이다.

두 대담자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전자 투표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쓰기 **

7. [출제의도] 그림 자료를 통해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그림에서 두 사람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일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을 바탕으로 '직업이 지닌 자아실현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았다. ④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9. [출제의도] 개요를 작성하고 적절하게 수정·보완하는 문제이다.

독서 심리 치료의 성공 사례는 이론적 기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창의적 글 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주제, 소재, 표현의 조건을 제시한 후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①번과 ⑤번에는 비유적 표현이 없고 ②번에는 구체적 사건이 없다. ④번은 주제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1. [출제의도] 영상물 제작 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e-러닝(e-learning)'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했는데, ④번에서는 'e-러닝(e-learning)'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12. [출제의도] 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은 인과 관계가 아니고, ② 셋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비문이다. ③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유리하다'와 '무모하다'는 '유익하다'와 '무방하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땀플랫'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땀플릿'으로 고치는 것이 옳바르다. ⑤ 둘째 문단은 보조 문단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부분은 없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이다.

13.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단어의 쓰임을 묻는 문제이다.

① '나무랐니?', ③은 '마요', ④는 '어떡해', ⑤는 '갈게'가 바른 표현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14. [출제의도] 표준어의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맞춤법 규정 25항의 1의 예로 '급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꾸준히' 등이 있다. 2의 예에는 '생긋이', '오독이', '해죽이, 일찍이' 등이 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다.

** 현대시 **

□ 출전 : (가) 정지용, 「춘설」
(나) 고은, 「續 눈길」
(다) 오장환, 「모춘」

15.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 (나), (다) 모두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16.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바꿔 쓰는 문제이다.

(다)에는 절망과 좌절로 인해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나서는 양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번은 이런 시적 상황과 상반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17.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화자의 내면 심리를 묻는 문제이다.

시적 화자는 춘설을 통해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이에 햇웃을 벗어 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8. [출제의도]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으므로 역설적 표현이다. ①의 '차가운 아름다움', ③의 '맑은 어둠', ④의 '따뜻한 피만이 열 수 있고', ⑤의 '외로움 눈부심'도 같은 표현이다. 그러나 ②번에는 역설적 표현이 없다.

19.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어둠'은 시적 화자가 그 동안의 고통과 방황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과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한 무념 무상의 경지를 의미한다. 반면에 (다)의 '밤'은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다.

** 과학기술 **

□ 출전 : 박창호 외 1인, 「교량의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20.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예를 들어 가며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1. [출제의도] 본문을 기사문으로 바꿀 때 적절한 표제와 부제를 정하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교량 유지 관리의 목적은 사용 기간 연장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유지 관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번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이야기 자료를 만드는 문제이다.

평소에 교량의 유지 관리 수준을 높이면 교량의 수명이 연장되고 전체 비용도 절감된다고 했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②번이다.

23.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속담을 찾는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당장의 비용 문제 때문에 교량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려고만 했다. 이러한 실태를 비판하기에 적절한 속담은 ①번이다.

**** 시가복합 ****
□ 출전 : (가)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나) 한옥구, 「보리」
(다)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24.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에는 봄을 맞이하여, 자연 속에 묻혀 사는 만족감은 드러나 있지만 연군의 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5.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㉔은 이곳이 무릉도원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지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26. [출제의도]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시적 화자는 자연을, (나)의 시적 화자는 보리를 예찬하고 있다. ⑤에서는 금강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7.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자연 속에서 봄을 만끽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시적 화자에게 ㉔는 속세의 부귀와 공명을 의미한다. (다)의 ‘벼슬길’은 농부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으로 ㉔와 그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28. [출제의도] 대상의 원관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에서 시적 화자는 ‘보리’를 다양한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①, ②, ③, ⑤는 각각 ‘보리’의 보조관념이지만, ④는 단순히 노고지리의 노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29.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의 ‘보리’는 온갖 시련을 극복한 존재로 성숙의 표상이자 예찬의 대상이고, (다)의 ‘보리’는 농부들의 노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이다.

30. [출제의도] 행위의 주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 ②, ③, ⑤의 주체는 농부이며, ④의 주체는 시적 화자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 언어 ****
□ 출전 : 이익섭, 「방언학」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방언의 문화 원인, 우리 나라 지역 방언의 종류, 사회 방언에 대한 관심의 증대, 지역 방언의 발생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방언의 언어학적 가치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2. [출제의도]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ㄱ은 지역 방언, ㄴ은 연령의 차이에 의한 사회 방언, ㄷ은 ‘삼마니’라는 직업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 방언, ㄹ은 계층의 차이에 따른 사회 방언이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3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문맥으로 볼 때, ‘소원(疏遠)’은 ‘소식이나 왕래가 오래 끊긴 상태에 있다’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4. [출제의도] 이 글을 바탕으로 사회 언어학이 대두된 이유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사회 언어학은 전통적인 방언학이 시골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두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방언의 발생 요인은 지역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계층, 세대·연령 등 다양하다. 그러나 전통 방언학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언 분화 원인을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인문 ****
□ 출전 :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3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에서 모서리가 매워지고 봉합될 때 기하학적 환경성이 완성된다고 했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3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모서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건축과 서양 전통 건축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37. [출제의도] 두 대상 간의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서 서양 전통 건축은 편리성을 추구하고, 여섯째 문단에서 대부분의 한국 전통 건축은 편안함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38.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간접 의사소통은 ‘얼굴 표정, 걸음걸이, 발자국 소리’ 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②에서 ‘나’는 행동으로 거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39. [출제의도] 적절한 심화 활동 과제를 묻는 문제이다.
다섯째 문단에서 궁궐의 율령과 한옥 안채의 모서리가 닫힌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화 활동 과제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이다.

**** 고전 산문 ****
□ 출전: 허균, 「호민론」

40.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는 위정자들의 본분 망각으로 인한 망국과 혼란의 사례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41. [출제의도]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를 통해 볼 때 비판 의식과 실천력이 가장 적절한 분류 기준이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42. [출제의도] 문장의 문맥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다)에서 올바른 위정자는 백성을 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지 않는 위정자가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다.

43. [출제의도] 내용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㉔은 호민들이 기회만 되면 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수방관’은 해야 할 일에 간섭하지 않고 겉에서 보기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다.

**** 예술 ****
□ 출전 : 안경환,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44. [출제의도]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제이다.
문학 작품을 영상화하는 새로운 시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술 작품의 창조가 기존 작품의 파괴에서 비롯된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45. [출제의도] 문맥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쿠아론의 작품은 원작의 사회적 메시지가 사라지고 청춘남녀의 애정에 초점을 맞춘 영화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이다.

46. [출제의도] 제시된 작품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디킨스의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한 린의 영화와, 새로운 해석으로 원작의 틀을 깬 쿠아론의 영화를 대비시켜 관계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관계는 ④번이다.

47.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에서 ‘독자’가 ‘관객’으로 바뀌고, 마지막 문단에서 독서 세대가 사라진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고전 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윤지정전」

48.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9. [출제의도] 회곡으로 각색할 때 적절한 지시문을 찾는 문제이다.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한림이 일부러 부미를 혼내 주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50. [출제의도] 대화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사위는 장인에게 아내가 그리워 월장을 했다고 투정하고, 장인은 그런 사위를 달래며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51.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㉔에는 주인공이 아내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이다.

**** 경제 ****
□ 출전 : 이용석 외 2인, 「e-비즈니스 경영론」

5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에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풍부함이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이다.

5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서 디지털 제화는 초기의 고정 투자 비용은 크지만 추가 생산에 따른 한계 비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이다.

54. [출제의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서 디지털 제화의 비용은 초기의 고정투자 비용은 크지만 추가 생산에 따른 비용은 미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다.

55. [출제의도] 내용을 이해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가입자(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교류가 활발해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 현대 소설 ****
□ 출전 : 박완서, 「엄마의 말뚝」

5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과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오빠의 죽음이라는 과거의 사건과 어머니의 임종을 앞둔 현실 상황이 연관되어 가족사의 비극이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57. [출제의도] 인물 간의 태도와 심리를 묻는 문제이다.

나를 중심으로 인물 간의 태도를 보면 친구는 나의 준비 없음을 충고한다. 나는 고향의 선영을 핑계로 입장을 설명한다. 또 어머니는 나를 믿고 유언 같은 부탁을 하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뜻을 수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이다.

58.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 의미를 찾는 문제이다.

①, ②는 ‘신체’, ③은 ‘식구’, ④는 ‘말(言)’, ⑤는 ‘한 번에’의 뜻이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59. [출제의도] 문맥 의미를 파악해 내는 문제이다.

㉠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분단의 비극을 의미한다. 또 이런 분단과 대결하려는 어머니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자식들과 단절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다.

60. [출제의도] 서술자의 심리를 묻는 문제이다.

어머니의 부탁을 어쩔 도리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말로 서술자의 울분과 무력감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